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믿기 어려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알게 된 국민들 대부분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 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와 청와대 비서진을 전격 개편했지만 사태를 정상적으로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얼마 전까지는 30% 이상으로 견고함을 자랑하던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도 10% 이하로 추락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절차와 내용 모두 정치권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정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국민적 분노는 더 큰 행동을 예고한다. '최순실 사태'로 야기된 사회적인 국론 분열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관한 걱정은 차치하더라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우리의 존망과 직결되는 최우선 부문이라는 점에서 국정 마비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이었다. 최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가 도쿄에서 열리기도 했다. 우려에 우려를 더한 느낌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상대가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국정의 비정상 사태를 맞아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이 어렵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우리의 사정을 봐주면서 현안에 대처하는 아량을 베풀지는 않는다.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상대방 공무원들과 실무적인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실무 협의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난감한 상황이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외교·안보의 중요성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관계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북한이 우리의 사태를 악용해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더욱 획책하는 도발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경험에서 긴장 격화의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지만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상시 안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24시간 위기 대응 매뉴얼이 준비·가동되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의 공백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남북관계가 기본이고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의 균형적 발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대외교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내치와 외치는 표리 일체이다. 가정이든 국가든 내치가 안 되면 외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내치가 외치까지 집어삼켜서는 안 된다. 국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수록 처리해야 할 현안을 미뤄 놓거나 섣불리 대충 처리해서도 안 된다.

유관기관은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나가야 한다. 기존에 갖춰 놓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곧장 보완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 종사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현안에 대비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우선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질서를 찾고 국정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청와대는 호국훈련 시작에 맞춰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 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청와대의 의지와 정책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위안부 합의·개성공단 전면 중단·사드 배치 등의 정책 결정은 절차·국가안보·국가 이익 모든 면에서 아마추어 수준이다.

지금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위안부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의 이행 절차는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도 보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종교칼럼

'감사'는 '행동의 언어'로 옮겨야

양 홍
서광교회 협동목사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에게 언어를 주셨다. 초목들은 잎과 잎이, 가지와 가지가, 뿌리와 뿌리의 접촉으로 다정히 대화하고 바람에 흔들려 동작으로 이슬에 젖어 다소곳이 말한다. 달과 별은 은빛 금빛의 언어로 교통하는 것 같다.

동물들은 입과 손 발로, 그리고 몸으로 희비애락을 알기 쉽게 표현한다. 지붕 위 새들의 지저귐에서 사랑의 언어들을 들을 수 있다. 창공을 나는 기러기 떼들의 행진에서, 사자의 노호에서, 사슴의 질주에서 그들이 말하고 전하는 의사를 들을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은 축복 같이 고도로 발달된 언어를 갖고 있다. 그 언어로 사상을 전달하고 과학이 발달되며 종교의 힘이 인간 심혼에 깊이 파고들 수 있다. 그 언어 중 은혜의 보답으로 주는 말 '감사'가 있다. 참으로 아름답고 인정미 넘치는 언어이다.

그러나 물 한잔에 대한 '감사'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같은 단어로서 표현되는 데는 언어의 제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며,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감사는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십자가는 수직으로, 즉 위에서 땅을 향해 내려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해 횡적으로 땅에서 땅 끝까지 연결된 인류의 사랑이 교차된 것이다. 이 사랑의 교차점에서 폭발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류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용어로서의 '감사'는 이런 십자가의 의미, 사랑과 희생, 그리고 신앙과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매우 크고 깊은 단어이다.

6·25 때 순교 당하신 손양원 목사는 여수 반란 사건 때 좌경학생들에 의해 두 아들을 잃었다. 그는 1948년 10월27일 순교자의 영결식에서 이런 답사를 했다.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하고,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셨으니 또한 감사하고,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나의 양아들 삼고자하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 그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오늘에 감사하는 마음은 향기로운 꽃이요 감사하는 행위는 아름다운 열매다. 늘 감사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감사하는 마음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잉태되고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행로에는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것이다.

효가 만행의 본이라는 동양도덕이 아름답듯이 실로 '감사'는 미 중의 미요, 선 중의 선이라고 할 것이다. 수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수평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다. 종적으로 하늘을 향해 감사할 때 횡적으로는 사회에 단결이 유지되고 사랑과 화목이 오고 간다. 이 감사의 정신이 지배하는 우리들 개인, 우리들 가정, 우리들의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자.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느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을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기쁨을 창조하는 바탕은 감사이고 감사의 원천은 은혜를 잊지 않는 데 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인데 주어진 것 중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 은혜, 이 약속이 감사를 낳고 이 감사의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감사의 본질은 고통과 불행의 물결 속에서도 꺼지지 아니한다.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로 옮겨야 한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깊은 곳의 언어가 진정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행동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 수확의 계절에 어제의 감사, 오늘의 만족, 내일의 희망으로 살아가자.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 고

바람만이 아는 대답

임 영 열
광주시 북구 문흥동

2016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한국의 고은 시인도 아니었고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미국의 싱어송 라이터이자 화가이며 시인이기도 한 밥 딜런(Bob Dylan)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밥 딜런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스웨덴 한림원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위대한 미국 음악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고 밝혔으며 밥 딜런은 "귀를 위한 시를 쓴다"면서 "그의 작품은 시로 옮겨놔도 완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노랫말은 사회, 철학, 문학적 성찰을 담아내고 있으며 인간의 깊은 내면을 자신만의 시각을 통하여 음악으로 탐구하고 있어 '음유시인'이라는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2004년 뉴욕타임스는 밥 딜런의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올해의 최고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서전에서는 모더니즘 시인 에즈라 파운드, T. S. 엘리엇, 상징주의 작가인 허먼 멜빌 등 그가 접했던 작가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밥 딜런의 문학적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에 근거해서 앨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노래에 가장 적합한 가사를 얻기 위해서 뉴욕 공공도서관에 틀어박혀 신문을 미친 듯이 읽어가기도 했습니다.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세계 문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와 환영의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에게도 '트레인 스포팅'으로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어빈 웰쉬는 밥 딜런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나도 딜런 팬이지만, 이것은 노쇠하고 영문 모를 말을 지껄이는 히피의 썩은 내 나는 전립선에서 짜낸 노스탤지어의 상"이라고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반면에 인도 출신 영국 소설가 샐먼 루시디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부터 노래와 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딜런은 음영(吟詠) 시인 역사의 찬란한 상속인"이라며 딜런의 수상을 전폭적으로 환영했다.

노벨문학상은 반드시 정통파 문인들이 받아왔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53년, 당시 노벨 문학상 후보로는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비롯하여,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 등이 있었지만 쟁쟁한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받았으며, 작년에는 논픽션 저널리스트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겪은 벨라루스 사람들의 감정과 발언, 전쟁 경험자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논픽션 '체르노빌의 목소리'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노벨문학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것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대중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밥 딜런은 1941년생 75세로 고향은 미네소타주 덜루스이며 러시아계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지머맨(Robert Allen Zimmerman)이었지만 스코틀랜드 시인 딜런 토머스를 좋아해서 이름까지 밥 딜런으로 개명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1960년대부터 저항음악의 상징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종 차별 반대, 반전, 반핵 등 정치적이고 사회성 짙은 음악을 끊임없이 발표하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의 대표곡 중에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in' In The Wind)"과 "Knockin' on heaven's door"는 저항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음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 봐야/ 진정한 인생을 깨닫게 될까/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백사장에 편히 쉴 수 있을까/ 전쟁의 포화가 얼마나 많이 휩쓸고 나서야/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반전과 반핵,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문화 예술계 '블랙 리스트'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세월호법 정부 시행령 폐지 촉구 선언에 동참한 문화예술인 9400여 명의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공연장 대관이 거절되기도 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이 끊기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월호는 바닷속에 있고 진실도 함께 침몰해 있는데 말입니다. '문화융성'을 외치면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한참이나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을 밥 딜런이 목도한다면 이렇게 은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이 있어야/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라고 말입니다.

社 說

'기습 개각은 꼼수' 대통령 권한 내려놓아야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부의 기습 개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광옥(74)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호남 출신으로 한때 동교동계 핵심으로 통했던 한 비서실장의 발탁은 참여정부 출신인 김병준 내정자의 총리 지명과 함께 야권을 배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호남에서는 과거 그렇게 탕평인사를 호소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특정지역 편중 인사를 하더니 이제 와서 '땡처리' 인사로 민심을 호도하려 하느냐는 혹독한 비판까지 하는 실정이다. 야권에서는 한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부도난 회사에 퇴직자를 불렀다"는 식으로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간담회를 하루 미뤘던 김 총리 내정자는 어제 총리 지명 수락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구속력 있는 약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을 독대하고 "경제와 사회 분야를 맡겨 달라"고 했고 "맡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버거워 보인다.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는 말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과거 '얼굴 총리'들도 다 말만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아야 한다는 민심을 무시한 채 여야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각을 발표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에서 조차(정병국 의원) "기습 총리 임명은 정쟁 유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청와대의 꼼수로 보인다"라고 비판했겠는가.

이제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할 경우 김 총리 내정자는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도 의장선거에서 금품 주고받는가

전남 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의장직을 놓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 의회에서 매관매직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고흥경찰은 어제 고흥군의회 7대 상·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군의회 김 모(57) 의장을 구속했다. 김 의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6월24일 진행된 고흥군의회 7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다. 그는 또 지난 2014년 상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의원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 박 모 의장도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완도경찰 역시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의원 상호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공복이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이권을 노릴 수 있는 '노른자위' 자리를 챙기려는 것은 명백한 적폐다.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유권자 신뢰를 잃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물론 사법 당국이 의회의 불법을 단죄해야 하겠지만, 이제 지방의회 스스로도 비리 척결과 자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초의원들은 자신들의 직위가 애초 봉사를 위한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유권자들도 의원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안 되는 후보는 반드시 선거에서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복마전

복마전은 악의 소굴,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을 뜻한다. 동서양의 고전에는 복마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적잖게 등장하는데, 중국 명대의 무협소설 수호지(水滸誌)에 등장하는 복마전(伏魔殿)과 영국 시인 밀턴의 서사시 실락원(失樂園)에 나오는 복마전(Pandemonium)이 대표적이다.

수호지의 '복마전'은 송강, 이규, 노지심, 무송 등 양산박을 주름잡은 108명의 호걸이 사람으로 환생하기 전 '마왕'으로서 갇혀 살고 있던 곳이다. 북송(北宋)의 인종(仁宗) 황제는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자 용호산에 거주하는 유명한 도사 장진인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대장군 홍신을 파견한다. 산에 도착한 홍신이 도사가 출타한 틈을 타 도관을 구경하던 중 '복마지전'(伏魔之殿)이라는 간판이 걸린 전각을 발견한다.

전각의 문을 열고 마당 한복판에 박힌 석비를 파내자 굉음과 함께 땅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이어 108 줄기의 금빛이 쏘아져 나오더니 전각의 지붕을 뚫고 사라져 버렸다. 때마침 돌아온 장진인은 "이 곳에 가두어 둔 108명의 마왕이 풀려났으니, 나라에 큰 소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풀려난 마왕들이 사람으로 환생한 것이 바로 양산박의 108 호걸이다.

실락원의 복마전은 '하느님에 대항하는' 악마들의 소굴이다. 태고적 천사를 통솔하는 천사장이었던 사탄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던진 벼락을 맞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탄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악마들을 동원, '복마전'을 세워 복수를 시도한다. 뱀의 탈을 쓰고 낙원에 숨어 들어간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 감언이설로 꾀어 선악과를 먹게 한다. 하와는 이어 남편인 아담을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하고, 낙원은 '죄'와 '죽음'으로 물들게 된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거대한 복마전이 생겨났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절대권력을 등에 업고 둥지를 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그것이다. 복마전은 어둠 속에 있어야 제격이다. 하지만 이제 온 나라에 촛불이 밝게 켜졌으니 복마전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 '화무십일홍'. 변치 않는 역사의 교훈이다.

/홍행기 사회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